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1월 마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년 2월 국회 처리 제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확대안 입법 완료 시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모델 발굴·지원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내년 1월 중 마련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에는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결정구조 개편 관련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과 함께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개편안은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충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밝혔듯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데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세제장려금(EITC) 확

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 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EITC 지원 대상 자영업자는 내년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총 238만명이 2조8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주 52시간제 보안을 위해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까지였던 제도기간(차별유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이 입법 완료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를 언급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

장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3560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고용 모델의 방향성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모델이 마련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로 다양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논의를 촉진·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이번달 중 구성된다.

근로자에게 공동 어린이집, 기술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한다. 재원 다변화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복지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 통합 운용 및 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존 법인세 손비 인정과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가 이뤄지던 것에서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를 추가로 도입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 정보를 확대하고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직급 제공 범위를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시스템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엔 직무 중심 임금, 평가 체계 개선과 관련한 400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이 'HAPPY WINTER'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한다.

'HAPPY WINTER' 환전·송금 페스티벌

농협은행, 500달러 이상 환전·송금 시 푸짐한 경품 신규 지정 유학생 전신료 면제·SNS퀴즈 이벤트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겨울방학 중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HAPPY WINTER'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500달러 이상 환전,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 100여만원(1명), 농산물상품권 50여만원(2명), 농산물상품권 30여만원(3명),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여만원(300명) 등 총 306여명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페스티벌 기간 중 NH농협은행을 해외체재비행목(해외여행생·해외체재자) 거래의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는 고객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전신료(8,000원)가 면제된다. 더불어,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최대 90% 환율우대가 적용되는 '너도나도 환전'의 지난 11월 출시 기념해,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NH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퀴즈 이벤트

에 정답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일 50여명씩 총150여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 2매를 증정한다.

환전 및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외외카드(포켓외외카드) 15% 할인 ▲공항철도 직통열차 1,500원 할인 ▲공항 의무보관서비스 5,000원 할인 등 다양한 제휴사 혜택도 제공한다.

'너도나도 환전'은 고객이 올원뱅크 앱으로 환전을 신청해 생성된 가상계좌에 30분내에 입금하고 고객이 원하는 농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외화실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농협은행 계좌가 없거나 올원뱅크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환전서비스이다.

한편, 환전가능통화는 USD, JPY, EUR, CNY 4종이며, 1일 한도는 100여만원 상당액, 월간 한도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USD/JPY/EUR은 90%, CNY는 40% 우대환율을 적용하고,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4시부터 22시까지 신청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

한국은행 전북본부, 추진전략 논의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와 서비스무역자유도를 이용하여 서비스무역의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후,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서비스업종을 선별하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들 업종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무역 규제 수준을 1% 완화할 경우 국내 서비스수출은 0.063% 증가했으며 새만금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서비스업종은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등으로 여러 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경쟁장벽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이들 5개 업종의 전북지역 수출은 2019~23년중 522억원 증가하는 가

운데 생산유발액은 963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06억원, 일자리유발개수는 992개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5년간 최대 수출증가액이 1조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큰 상위 5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규제혁신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제사례를 발굴, 개선하여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지자체 등이 매칭펀드를 조성, 초기 투자비용 및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박의성 (063-250-408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농협사료 전북지사, 배합사료 품질 우수성 입증

이용농가·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농협사료 전북지사(지사장 최현규)는 제2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12개 상 중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 3개의 상을 전북지사 배합사료 이용농가가 휩쓰는 기업을 발췌, 품질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전북 장수의 박영호 농가는 "45년 동안 한우를 사육하면서 철저한 기록 분석과 후대검정을 통해 육종개발에 노력해 왔다"며, "농협사료를 믿고 급여한 결과 도체중 500kg, 등심단면적 138cm², 1++A, 등지방두께 8mm로 육량지수 72.19점을 받아 마침내 국무총리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영호 농가의 최근 출하성적을 보더라도 비육우 39두 중 1++등급은 17마리(44%), 1+등급 이상은 33마리(85%)로 나타났다. 1++등급 전국 평균치(18%)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축산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협사료와 동거동락의 같이 해 온 박영호 농가는 "농협사료에 대적 할 만한 사료는 없다"며, 농협사료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보였다.

농협사료 전북지사는 "급변하는 축산환경과 여건에 맞춰 끊임없는 투자와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료를 개발해 왔다"며,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HACCP인증을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는 등 품질개선과 제품개발에 앞장서 왔다. 또한, 축산물브랜드전에서 6년 연속 '명품 인증'을 받아 온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참예우'의 전용사료를 공급해 온 점은 농협사료의 품질 우수성과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최현규 농협사료전북지사장은 "축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드림서비스를 더욱 더 확대하고 품질개발과 사양시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어촌공, 경영마인드 함양 위한 선진지 견학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본부장 박종만, 센터장 이석홍)는 지난 14일 내수면 어업인의 역량강화,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정읍 자율관리 영어조합 법인,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등 20여명의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어업인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견학지는 부안수협 수산물가공공장, 부안 곰소 천년의 잣밭 영어

조합법인, 부안 한신수산물, HACCP 인증을 취득한 수산식품 가공공장 견학을 통해 내수면 어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수면 6차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한편,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북어촌마을 발전, 내수면 어업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